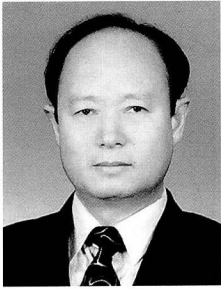


# 신년사



전 기 현 회장

친애하는 양봉농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2007년 정해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소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길 바라며,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양봉농가에 근심거리가 많은 해였습니다. 본인도 양봉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어려움이 우리 양봉농가에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올는지 잘 알고 있으며, 그 동안 마

음고생 많으셨던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중국 수입 소비, 화분 검역물 지정 항생제파동문제 등 우리 양봉산업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양봉인들이 푹푹 뭉친다면 못해 낼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항생제파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양봉산물을 생산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 산업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욕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낙오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바로 그것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 양봉인들의 인식도 변화될 필요가 있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협회는 올해 버스 홍보에 더해 서울 시가에서 벌꿀 캠페인 행사를 벌여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임의자조금 사업을 실시하여 홍보활동에 더욱 주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시장 개방의 물결이 일고 있는 지금, 우리 양봉산업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한·미FTA, 한·캐나다FTA 협상에서 우리 벌꿀이 제외품목이 될 수 있도록 본 협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봉산업이 언제까지나 계속 보호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협회에서는 최후의 방어막을 치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정부 빅딜을 할수 있는 만반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시행되었던 해외연수교육, 밀원수 식재 사업,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 벌꿀홍보 사업등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해년(丁亥年)새해에는 풍성한 수확으로 모든 분들에게 웃음꽃 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